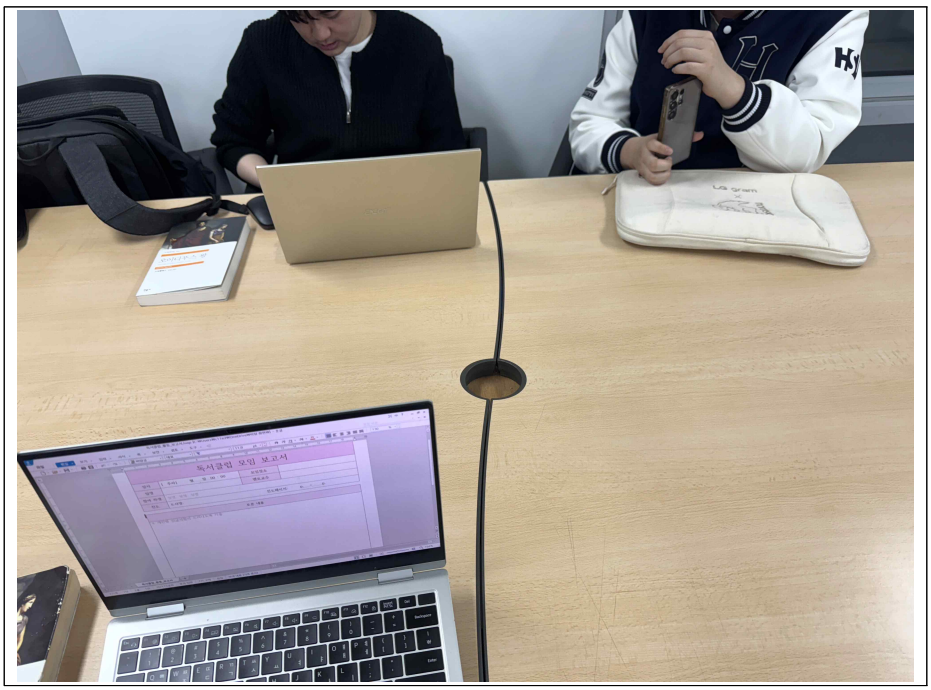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팀명

1주차	일시	10월 28일 17 : 00 장소명: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5f)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최은재(2191307)	O
		홍범기(1711123)	O
		서준(2591109)	O
	진도	도서명: 오이디푸스 왕	진도페이지: 15 p. ~ 116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최은재, 홍범기, 서준]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느낀점

최은재: 처음에 해당 책을 펼쳤을 때는 낯선 희곡이란 형식에 독서에 많은 곤란함을 겪었다. 잘 알지못하는 단어를 찾을때만 보던 각주에 보다 많은 설명이 기재되어있고, 연극의 대본같은 책 형식에 독서하면서도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을까...?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그러나 내가 알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과 비극의 내용을 비교해보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들을 기록해보면서 점차 책을 어떻게 읽어야할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 토론 시에 팀원들과 내가 느꼈던 경험을 똑같이 하였는지 질문해보았는데, 다들 동일하게 대답하여서 웃음이 나기도 하였다.

첫 번째 단원인 ‘오이디푸스 왕’은 우리에게 "과연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

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역시 오이디푸스처럼 굳게 믿고 살았던 삶의 근본이 사실은 거대한 오해의 산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숙고하게 만드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흔히 알려진 오이디푸스 신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숙고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홍범기:작중에서 오이디푸스는 영웅이지만 성급하고 의심 많은 결점도 있다. 하지만 읽으면서 그가 국가를 위하는 마음과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강한 도덕적 책임감을 지닌 인물이라고 느꼈다.
평소와 달리 이번에는 서문을 꼼꼼히 읽었는데, 이는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서문을 통해 주석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지명과 인물 정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소 매끄럽지 않은 번역이 실은 원문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번역가의 의도임을 미리 알게 되었다. 덕분에 작품 자체에 더욱 깊이 집중할 수 있었다.

서준: 먼저 책의 첫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 일반적인 책과 달리 희곡처럼 인물들의 대사로만 이루어진 서술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었고, 원문의 느낌을 살린 번역은 주석을 읽어도 이해가 힘든 책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오이디푸스는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인생 첫 비극 작품이었다 보니 오이디푸스가 더더욱 불쌍해보였다. 예언을 듣고 가족을 위해 다른 나라로 왔건만 그곳이 원래의 고향이었다니.... 또한 오이디푸스의 영웅적인 면모와 정반대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이유와 방식은 단순한 불량배와 다름이 없는 모습이 인간의 양면성을 훌륭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완전한 선인 완전한 악인이 없듯이 오이디푸스도 양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소포클레스가 얼마나 위대한 작가인지 보여준다. 그 당시 그리스 신화를 이용한 비극으로 우리에게 여러 의미있는 질문을 던지는 책, 정말 재밌게 읽었다.

토론주제

죄의 죄책감 vs 도시를 위한 책임감

최은재: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눈을 멀게 한 것은, 본인에게 충격적이고 끔찍한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에서 도망치고 싶어한 오이디푸스 욕구가 분출된 행위라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이것이 도시를 위한 책임감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개인적이고 충동적인 행위로 보았다. 왕으로서 도시를 위한 책임감이었다면, 스스로를 징벌하기 위해 눈을 멀게 하는 비이성적인 자해 대신, 신속하게 정치적 결단 합리적이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깨닫자마자 격정적으로 자해를 선택했고, 이는 죄의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홍범기: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추방을 요구한 것은, 진실을 알게 된 당시 끔찍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에는 도시를 위한 책임감보다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절망과 혐오감이 훨씬 더 컸을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켠에는 도시를 위한 책임감 또한 어느정도 있었다고 본다. 비록 시작은 충동적인 행동동일지라도, 결국 신탁의 내용대로 '오염의 근원'인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은, 왕으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려는 의도가 일부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서준: 오이디푸스는 양면적인 인물이자 입체적인 인물이다.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양아치이자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 예언자의 말은 믿지 않는 오이디푸스는 완전한 선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이디푸스가 도시를 위한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죄책감이 크다고 생각한다. 아는 것 vs 모르는 것 최은재: 오이디푸스가 겪은 고통은 진실을 몰랐을 때에도 이미 그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진실을 아는 행위는 비록 자신을 파멸시키지만, 운명 앞에 놓인 자신의 존재와 고통을 스스로 인식함으로써 선택권을 스스로 가지고, 존엄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진실을 모른 채 살았더라면, 오이디푸스는 영원히 자신을 괴롭히는 신탁의 저주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며 살았을 것이다. 앎은 그에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 직시하며 비극적 운명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홍범기: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갈림길에서, 나는 오이디푸스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다. '혹시 나의 잘못은 아닐까' 하는 찝찝한 의심과 막연한 죄책감 속에서 계속 괴로워하느니, '불편한 진실' 알게 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진실을 모르는채 겪는 고통이, 때로는 그것을 알고 감당해야 하는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오이디푸스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오이디푸스와 같이 모든 진실을 알려고 노력했을거다. 작중 도시는 망가져가고 시민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신탁을 들었고 거기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가 신탁의 내용을 듣는 것은 필연이다. 그럼 도시가 계속 망가져가는 상황에서 자기자신을 의심하면서 평생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갈것인가? 난 그렇게는 못 살거 같다.

2주차	일시	11 월 11 일 21 : 00 장소명: 비대면 화상 회의(z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최은재(2191307)	O
		홍범기(1711123)	O
		서준(2591109)	O
	진도	도서명: 오이디푸스왕	진도페이지: 117 p. ~ 200 p.

		  [좌측부터 서준, 최은재, 김귀옥 교수님, 홍범기] 느낀점 최은재: 앞서서 1회차를 진행 후에 보다 희곡이라는 글의 형식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익숙해진 것 같았다. 이전의 ‘오이디푸스 왕’ 챕터는 잘 알고있는 신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 사전지식이 있었기에 이해에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안티고네’ 챕터는 사전 지식 없이 읽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필기와 검색을 반복하며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훨씬 많은 시간을 소요한 것 같다.
	토론 내용	안티고네를 읽으면서 제일 곱씹었던 것은 공적 영역의 법과 사적 영역의 윤리가 충돌할 때, 개인의 신념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안티고네는 가족에 대한 도리라는 사적인 영역의 윤리를 지키려 하고, 크레온은 국가 질서와 통치자의 권위라는 공적인 영역의 법을 수호하려 한다. 이 두 가치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대립 관계에 놓였다는 사실이 이 비극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나는 안티고네의 개인적 신념에 공감하면서도, 크레온이 '법은 만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질서를 확립하려는 통치자의 고뇌 역시 이해가 되었다. 홍범기:작중에서 크레온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폴뤼네이케스를 위해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 책을 읽는 내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법은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과연 그 명령이 정말 도리에 어긋난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며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철학적 논의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오늘날의 상황에도 충분히 대입할 수 있는 주제라 더욱 깊이 와닿았다. 한편으로는 법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딜레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냉정한 선택일지라도, 전체를 위해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 느꼈다. 서준: 책을 읽다보니 희곡느낌의 대사식 서술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재밌게 읽을 수 있었다. 확실히 책에 익숙해지고 이전 내용과 이어지다보니 이해도 쉽고 생각할 거리도 많아 재밌었다. 안티고네는 인간성과 선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며 나였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했다. 내가 안티고네 였으면 어땠을까? 혹은 내가 크레온이었으면 어땠을까? 혹은 내가 제 3자였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내가 평소 뉴스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던 내용인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경계와 관련이 깊은 내용이라 그런부분을 많이 생각하며 읽을 수 있었다. 토론주제 도의적 책임 vs 법적 책임 최은재: 나는 법적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법적 책임, 즉 국가 공권력이 내린 명령을 따르는 것은 혼란에 빠진 도시 테베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크레온은 통치자로서 법적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붕괴한다고 보았고 안티고네의 개인적 윤리에 의해 예외가 생긴다면, 모든 시민이 자신의 주관적인 도의적 책임을 내세울 위험이 있을 것이다. 비록 크레온의 법이 가혹했을지라도,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존속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진 법의 권위와 그에 대한 준수가 개인의 도의적 책임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범기:이전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의무, 책임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 역시 결국은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의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지탱하고 인간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법의 역할과 책임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서준: 도의적 책임은 중요하다. 하지만 법적 책임 역시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도의적 책임은 주관적이고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객관적이고 기준이 명확하다. 물론 도의적 책임 역시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법을 무시하면 그건 무법지대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법적책임이 더 중요하다. 인권을 어디까지 지켜주어야 하는가? 최은재: 나는 인권은 공동체의 질서보다 상위의 가치로서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티고네>에서 크레온은 폴뤼네이케스의 시신 매장을 금지하는 국가법을 내세웠다. 그러나 안티고네가 주장한 매장 권리는 죽은 자에 대한 예의이자 신들의 법, 즉 당시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 인권인 것이다. 인권은 범죄자에게도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다. 크레온처럼 통치자의 의견만으로 해당 기본권을 박탈한다면 그것은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설상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이라도 말이다. '상대가 인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의 인권을 무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누가 그 기준을 설정하는지, 집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의 가치는 범죄 유무와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며, 처벌은 법에 따른 것이어야지 인권 자체를 박탈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홍범기:미디어를 보면 범죄자의 인권 보호 문제를 두고 논쟁이 치열하다. 피해자의 고통은 무시한 채 범죄자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적으로만 본다면, 범죄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 또한 틀린 말

		은 아니다. 만약 나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해자가 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다운 대우조차 받지 못한다면, 억울함을 넘어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될 것이다. 누구나 억울하게든 아니든 가해자의 입장에 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엇이든 과하면 안 되며,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준: 내가 책을 읽으며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다. 이건 고전이니 딱 와닫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조두순이라면? 유영철, 강호순이라면? 그들의 인권을 어디까지 지켜주어야 할까? 그래도 인권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상대가 인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권도 어느정도는 무시하고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무기징역이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죽을 때 까지 옥살이를 하면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겠지만, 상대가 연쇄살인마 같은 쓰레기라면 그정도 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건 기준이다. 확실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맞게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진짜 의미 최은재: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부모에 대한 애착을 넘어, 개인의 욕망이 외부의 사회적 법과 규범에 의해 제어되는 심리 구조의 확립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자아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부모를 경쟁자가 아닌 자신이 따라야 할 도덕적 기준이자 법의 대리자로 받아들인다. 이 동일시를 통해 자아가 형성되며, 이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내면의 법적 장치이다. 따라서 이 컴플렉스는 개인이 가장 원초적인 욕망(어머니를 독차지하려는 욕망)을 좌절시키고, 사회 질서와 법의 준수라는 더 큰 가치를 받아들이며 문명화되는 과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홍범기:이전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의무, 책임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 역시 결국은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의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지탱하고 인간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법의 역할과 책임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서준: 가치관이라고 생각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랙스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며 성장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아버지를 죽이는 1차적인 해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아닐라고 나는 아니라고 대답할거다.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은 어렸을 때 나를 보호해 주었던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고 아무도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른이 되는 과정은 나만의 가치관 나의 소신을 확실하게 잡고 구체화하며 ‘나’를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table>
<tr><td rowspan="9">3주차</td><td>일시</td><td colspan="2">11월 18일 17 : 00 장소명: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6f)</td></tr>
<tr><td rowspan="6">참여 학생</td><td>클럽원 정보</td><td>참석 여부</td></tr>
<tr><td>최은재(2191307)</td><td>O</td></tr>
<tr><td>홍범기(1711123)</td><td>O</td></tr>
<tr><td>서준(2591109)</td><td>O</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진도</td><td>도서명: 오이디푸스 왕</td><td>진도페이지: 201 p. ~ 290 p.</td></tr>
<tr><td>토론 내용</td><td colspan="2">

[활동 중 사용한 그룹스터디실 예약내역]

느낀점

최은재: 아이아스는 위대한 영웅의 몰락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 앞에서 개인이 겪는 비극적인 소외와 인정 욕구의 좌절을 보여준다. 나는 이 작품을 보며 아이아스가 겪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고통’에 주목하였다. 아이아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누구보다 큰 공을 세웠지만, 아킬레우스의 갑옷 경합에서 오디세우스의 지혜에 밀려 패배하고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와 깊은 배신감은 그가 광기에 빠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아이아스가 가축을 학살한 후 수치심 때문에 자결을 택한 것은, 명예를 잃은 삶은 생명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임을 보여준다. 이는 명예가 고대 그리스 영웅들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전부였음을 증명한다. 결국 <아이아스>는 공동체의 이익(집단 지도부의 결정) 앞에서 가장 위대한 개인이 어떻게 소외되고 짓밟히는지, 그리고 그 고립감이 한 영웅을 어떻게 비극으로 이끄는지를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홍범기:아이아스의 자만과 오만을 보며, 신화 속에서 신에게 오만함을 드러낸 인간이 왜 항상 벌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다. 특히 자신의 행동에 깊은 수치심을 느끼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결을 택하는 아이아스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이를 통해 인간에게 명예란 목숨과 맞바꿀 만큼 중요한 가치임을 느끼게 되었다.
</td></tr>
</table>

		서준: 아이아스는 영웅의 명예가 얼마나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었다. 아이아스가 모욕을 견디지 못해 파멸로 향하는 모습은 영웅도 결국 상처받는 인간임을 깨닫게 했다. 작품을 통해 명예와 자존심에 집착할 때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토론주제 신화에서는 명예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될까? 최은재: 고대 신화는 사회가 근대화, 사회화되기 전부터 계속 전승되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떠도는 설화처럼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일수도, 과장이 가미된 일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전에 근대화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떠도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때문에 신의 말씀인 '신탁'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그 '신탁'만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이다. 과거의 기득권층은 이를 이용해 기득권층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명예'라는 것에 주요한 가치를 두고, 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보았을 것이다. 홍범기:명예롭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 비난을 받거나 가혹한 벌을 받는 이야기들을 보면, 명예란 인간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서준: 배경이 고대 그리스이기 때문이다 당시 시대상황에서 명예는 정말 중요한 가치였고 그렇기에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신화에서도 명예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에게 베푸는 관용은 과연 어디까지 필요할까? 최은재: 나는 악한 사람에게 베푸는 관용의 필요성이 개인의 감정이 아닌 공동체의 이성에 기반한다고 판단한다. <아이아스>에서 아이아스는 지도자들에게 복수하려 했고, 지도자들(아가멤논, 메넬라오스)은 아이아스의 시신 매장을 금지하며 복수를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가 이성적인 관용을 베풀어 매장을 주장함으로써 무의미한 증오의 연쇄를 끊었다. 관용은 보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악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그 악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우리 자신(공동체)이 악인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행위이다. 오디세우스가 아이아스를 옹호하며 "나 자신 역시 운명 앞에 나약한 인간임을 깨달았다"고 말한 것과 같다. 홍범기:그 범위를 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만약 제3자가 아닌 피해자 당사자라면 감정적인 고통 때문에 관용을 베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사적 제재는 복수를 행하는 사람에게도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적 보복 대신, 그가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악인에게 베풀 수 있는 충분하고 현실적인 관용이라고 생각한다. 서준: 관용은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바뀔 것이다. 나 나

		름대로 기준을 정하자면 베푸는 사람이 피해받지 않는 선에서 받는 사람의 인간성과 인권을 지켜주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만약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피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티고네와 아이아스의 결말에 대한 비교 최은재: 안티고네와 아이아스의 결말은 모두 장례를 둘러싼 공적 권위와 신성한 불문율의 충돌을 다루지만, 최종적으로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비극의 결말은 '가치를 둘러싸고 국가 권력(크레온/아가멤논)과 대립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안티고네의 희생을 통해 크레온 스스로의 몰락과 깨달음으로 비극이 해소된다면, 아이아스와 적대 관계였던 오디세우스의 이성적인 설득을 통해 공동체의 품위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두 작품 모두 궁극적으로는 국가 권력이 잠시 유보했던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장례)이 결국은 지켜져야 한다는 고대 그리스의 보편적인 윤리관을 강력하게 강조한다. 홍범기:이 작품에서도 안티고네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장례란 신의 법칙이라 할 만큼 신성하고 중요한 의식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망자가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죽음 이후의 예우는 지켜져야할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준: 안티고네와 거의 비슷한 결말이라고 생각이든다. 아무리 영웅이라지만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고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 오디세우스라는 또 다른 영웅의 등장으로 그럼에도 영웅에 대한 예우와 인간에 대한 존중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4주차	일시	12월 5일 21 : 00 장소명: 비대면 화상 회의(z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최은재(2191307)	O
		홍범기(1711123)	O
		서준(2591109)	O
	진도	도서명: 오이디푸스 왕	진도페이지: 291. ~ 369p.

	토론 내용	 [상단부터 김귀옥 교수님, 최은재, 홍범기, 서준] 느낀점 최은재: <트라키스 여인들>은 영웅의 외적인 위대함이 아닌, 그 영웅을 둘러싼 평범한 인간의 나약한 감정이 초래하는 파국을 다루는 비극이다. 나는 이 작품이 영웅의 비극'이 아닌 '평범한 인간의 비극'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헤라클레스의 비극적 죽음은 신탁이나 숙명적인 운명이 아닌, 그의 아내 데이아네이라의 불안과 질투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소한 감정에서 비롯된다. 이는 웅장한 신화적 사건 대신, 인간의 나약한 내면이 파멸을 부른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무리 위대한 힘을 가진 영웅 헤라클레스일지라도, 결국 아내의 질투와 오해로 인한 사소한 독에 무너지는 모습은 인간의 운명 앞에서는 모두가 나약한 존재일 뿐임을 깨닫게 한다. 홍범기:데이아네이라는 처음에 매우 현명해 보였으나, 결국 질투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고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감정에 휩쓸리면 한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야 불길한 예감을 느끼는 그녀를 보며, 나 역시 행동하기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가 저지른 직후에야 '아차' 싶어 후회했던 경험이 떠올랐다. 작품 초반에 그녀는 '인간의 운명은 죽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불운하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질투심에 옷에 약을 바르는 순간만큼은 그 비극적 미래를 망각했다는 점이 모순적으로 느껴졌다. 서준: 정말 인간관계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사랑과 질투, 영웅과 가정, 성별과 시대상황 이 모든게 맞물려 정말 최고이자 최악의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영웅 헤라클레스의 정말 쓰레기같은 모습부터 사랑과 질투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한 데이아네이라의 안타까운 행동까지... 토론주제 질투와 오해, 그리고 사랑의 상관관계 최은재: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질투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해당 질투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배려가 포함되어야한다. 홍범기:데이아네이라의 행위가 과연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사랑과 질투의 경계는 어디인지 고민해 보았다. 나는 질투 또한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비록 그녀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기에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인간적인 감정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충분히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서준: 질투는 사랑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질투가 단순히 나쁜 감정으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데이아네이라는 남편을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헤라클레스가 다시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동했다. 비록 결과는 비극이 되었지만, 그의 질투는 사랑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었다. 그래서 질투를 사랑과 분리해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느꼈다. 여성의 역할과 시대적 고립감 최은재: 가부장제가 주를 이루는 해당 신화의 배경 시대에서는, 남녀의 역할 구분이 뚜렷하고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기회가 거의 없는 등 여성은 가정적인 부분에서 본인의 자아를 확립하고 역할이 부여된다고 생각한다. 헤라클레스는 영웅이므로 모두에게 칭송받고 사회생활도 활발이 수행하지만, 그에 반해 데이아네이라

		는 그럴 기회가 지극히 적다. 그 중에 헤라클레스의 외도까지 더해졌으니, 데이아네이라의 고립감은 지극히 커졌을 것이다. 이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범기: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남녀의 역할 구분, 그리고 그로 인한 헤라클레스의 장기간 부재와 데이아네이라의 외로움에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성별이나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의 역할이 바뀌었더라도, 혹은 현대 사회라 할지라도 파트너 간에 소통이 단절되고 서로 고립된다면 이와 비슷한 비극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서준: 이 작품은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가정 안에 머무르며 남편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잘 보여준다. 데이아네이라는 중요한 진실을 알 기회도, 자신의 불안과 사랑을 해소할 방법도 주어지지 않은 채 혼자 고민하며 고립된다. 그녀의 비극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여성이 감정과 정보를 스스로 처리해야만 했던 시대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고립감은 결국 작은 오해가 큰 비극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신탁이란 무엇일까? 최은재: 앞서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고대 신화는 사회가 근대화, 사회화되기 전부터 계속 전승되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떠도는 설화처럼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일수도, 과장이 가미된 일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전에 근대화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떠도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때문에 신의 말씀인 ‘신탁’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그 ‘신탁’만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이다. 과거의 기득권층은 이를 이용해 기득권층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한 영웅인 헤라클레스 또한 신탁대로 운명이 주어졌으니 이 ‘신탁’은 절대적이고, 이 신탁대로 행동하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신탁을 들을 수 있는 기득권층은 큰 이득을 보고, 기득권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홍범기:오늘날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천재지변의 원인을 밝히고 대비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정보의 부재로 인해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이다. 종교의 탄생 배경과 비슷하게, 신탁 역시 '신에게 빌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준: 신탁은 고대 사회에서 지금의 종교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느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통이나 재난을 신의 말에 의지해 해소하려 했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힘을 지닌 신탁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 방향을 찾게 해주는 믿음의 장치였고, 그만큼 인간의 의지와 감정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다.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최은재(2191307)	팀장으로 독서 클럽 활동을 진행한 것이 이번에 2번째인데, 이전에 다룬 책인 <오만과 편견>과 이번에 다룬 책인 <오이디푸스 왕>은 정말 다른 결의 도서라 색다른 경험, 토론을 할 수 있어 즐거웠다.

			<오이디푸스 왕>은 그동안 접해왔던 도서와는 다른 희곡 형식의 도서라 읽을 때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속뜻을 찾아가는 과정도 흥미로웠고 각 팀원마다 느낀 점과 찾아본 의미들을 비교해보는 것도 즐거웠다. 만약 혼자서 해당 도서를 읽어보았다면 단편적으로 받아들일 정보도 훨씬 입체적이고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하였다.
	2	홍범기(1711123)	독서 클럽 활동도 3회차를 맞이했다. 이전 활동에서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자기계발서나 시사 관련 서적을 다루었기에, 토론 주제를 선정하거나 내 생각을 정리해 이야기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했다. 하지만 이번 도서는 최근 자주 접하지 않았던 문학 분야였던 탓에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고,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야 할지 처음에는 막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내 생각을 팀원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으나, 다행히 팀원들이 제시해 준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움 덕분에 활동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장르였기에 이전 책들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집중할 수 있었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한 학기 동안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팀원들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꾸준히 접하고 싶다.
	3	서준(2591109)	대학교에 들어와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독서클럽에 참여했지만, 그 경험은 기대 이상으로 즐겁고 유익했다.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이 생겼고, 선배들과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새로운 시각도 배웠다. 특히 고전에 대한 부담이 줄고, 읽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 혼자만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깊어지는 대화는 매우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었다.